

◇후흉골 지주대를 이용한 누두흉의 교정술

허진필, 이정철, 정태은, 이동협, 한승세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누두흉의 수술적 교정방법은 Ravitch 술식, Wada의 흉골반전법, 그리고 후흉골 지주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주로 시행되어 왔다. 저자들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후흉골 지주대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술식의 결과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89년부터 1998년 3월까지 후흉골 지주대를 이용해 수술한 21명의 누두흉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. 수술은 횡 또는 종 피부절개 후 대흉근을 흉골과 늑연골로부터 분리하고 직배근을 흉골, 검상돌기, 늑연골로부터 분리한 다음, 함몰한 하부 4~5개의 늑연골을 연골막외 절제하였다. 흉골 뒤쪽의 조직을 분리한 다음에 가장 상부의 함몰 늑연골에 접하는 흉골의 전면에 횡으로 썩기모양의 골절개를 시행하여 흉골의 전 후 운동성을 증가 시켰다. 흉골을 거상시킨 다음 흉골의 후면을 지지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지주대가 양측 늑골의 전면에 걸치도록 위치시켰다. 지주대는 약 3~4개월 후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국소마취 하에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.

결과 : 나이는 평균 10.3 ± 6.6 세였고, 증상으로는 전례에서 외관상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내향적 성격을 가진 환자가 11[52.4%]례, 운동능력 저하가 10[47.6%]례, 잦은 상기도 감염이 7[33.3%]례, 흉벽의 비대칭성이 5[23.8%]례, 만성 기침이 2[9.5%]례이었다. 동반 기형으로 측만증이 3례, Marfan 증후군이 1례 있었고 가족력은 2례에서 있었다. 술 전 심전도 검사상 심장축의 좌측변위가 5[23.8%]례, 심장축의 우측변위가 1[4.76%]례, 불완전 우각차단이 2[9.5%]례가 있었다. 술 전 흉부방사선에서 심장의 좌측전위가 14[66.7%]례에서 관찰되었으나 술 후 13[92.9%]례에서 정상위치로 회복되었다. 술 전 웰치지수는 평균 5.52 ± 0.91 에서 술 후 3.73 ± 0.90 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[$p < 0.05$]. 수술소요시간은 평균 154.5 ± 40.8 분이었으며, 지주대의 제거는 평균 3.8 ± 1.7 개월이 소요되었다. 술 후 평균 재원기간은 9.1 ± 3.7 일이었으며 술 후 조기 합병증으로는 기흉과 창상열개가 각각 1례에서 있었다. 만기 합병증으로 지주대의 이동이 13[61.9%]례, 불안정한 전흉벽이 2[9.5%]례에서 있었다. 환자의 만족도는 Humphreys 평가기준상 excellent 38.9%, good 55.6%, fair 5.5%였다.

결론 : 후흉골 지주대를 이용한 누두흉의 교정술은 수술의 범위가 작고 술 후 흉벽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